

태국 국가 뮤직비디오 승려 추가

태국 정부가 불교의 상징과 승려의 모습이 빠졌다는 불교계 항의를 수용, 국가 뮤직비디오를 새로 제작해 보급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18일 인터넷 매체 카오솟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달 첫선을 보였던 기존 국가 뮤직비디오에 불상과 탁발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추가했다.

그것도 뮤직비디오 맨 처음에 배치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앴다. 여기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는 마하 와타랄롱꼰 국왕의 지난달 대관식 모습도 추가했다.

이번 재편집은 지난달 초 뮤직비디오가 나온 직후 '국가의 힘인 불교도'라는 불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단체는 태국의 주요한 세 요소인 국가, 종교 그리고 왕실의 모습이 없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드론 배송 실증실험 나선다

일본에서 드론(소형 무인기)을 이용한 무인배송 서비스가 실증실험 형태로 시작된다.

18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드론을 이용한 상품배송 실증실험을 내달 4일부터 9월 말까지 도쿄만에 있는 유일한 무인도인 사시마를 목적지로 3개월간 진행한다.

실증실험은 고객이 전용 앱으로 고기, 음료, 술, 야채 등 약 400품목 가운데 골라 주문하면 요코스카 시내의 세이유 매장 등에서 음식과 음료수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라쿠텐은 하루 8차례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는 실증실험 기간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문을 받을 예정이다.

배송 시간은 약천후 때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은 한 차례에 500엔(약 5천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

심근경색 후 인지기능 급속 저하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후에는 인지기능이 급속히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 보컨 대학원의 세우상 교수 팀이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고 인지기능이 정상인 50세 이상 남녀 7,888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넘게 진행한 연구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CNN 뉴스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17일 보도했다.

추적 조사 기간에 연구팀은 3가지의 인지 기능 테스트를 8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전체적으로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이 발생한 후에는 인지기능 테스트 성적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방면에서 인지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심근경색 후에는 언어 기억과 언어 유창성 테스트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연합뉴스

김정은·시진핑, 대미 공조 논의

북·중 관계 강화 선언 추진...대북 인도적 지원할 듯 핵 협상 재개 유도 美의 '대만·홍콩 압박 카드' 활용

미·중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평양에서 열릴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네 차례나 만났지만, 이번 회동이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이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북·중이 이어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은 핵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는 풀무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

린 시진핑 주석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로 내상까지 입어 북·중 관계 격상과 북미 핵 협상 재개 중재라는 '북한 카드'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일부부터 21일까지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동안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으로 찾아왔다. 김정은은 고려하면 이제 북·중 간 정상급 가담은 외교가 이뤄지는 셈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와 같은 혈맹 수준은 아니

더라도 명목상 이에 버금가는 관계 격상을 선언하며 전략적 밀월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대미 협상 카드가 되고, 북핵 협상에서는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서 북·중 모두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 쌀과 비료를 무상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쌀 1천t, 비료 16만2천7t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5월 2차 방중, 6월 3차 방중을 계기로 무상 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하는 만큼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대북 제재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쌀과 비

료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수십만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으로선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북극 의사를 끌어낸 뒤 G20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함으로써 남북이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협상할 카드를 쥐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7일 밤(현지시간) 중국 서남부 쓰촨성 이빈시 창닝현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나와 있다. /연합뉴스

중쓰촨성 6.0 강진...사상자 137명 달해

건물 다수 붕괴 속 주민들 광장·하천변 대피

17일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 이빈시에서 리히터 규모 6.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현지 주민들은 밤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광장, 하천변 등 넓은 장소에서 밤을 지새웠다.

중국의 고급 백주 우량예의 생산지로 유명한 이빈시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전날 밤 10시 55분께(이하 현지 시간). 진앙 일대에서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벽돌 등으로 지어진 저층 건물들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또 많은 건물 외벽의 벽돌 등 외장재가 우수수 떨어져 내리면서 도로 가운데에 수북이 쌓이기도 했다.

이번 지진으로 진원지인 이빈시에서 직선거리로 각각 200km가량 떨어진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와, 총칭직할시에서도 가정집 천장에 달린 등이 크게 흔들리고 아랑 속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를 정도로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이빈시 일대에서는 7세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2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하는 등 비교적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한발 물러선 홍콩 치안총수 "모든 시위대 폭도 아냐"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다가 16일 200만 명이 참여한 시위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홍콩 치안총수가 한발 물러섰다.

18일 홍콩 사우사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에 따르면 스테판 로 홍콩 경무처장은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들은 폭동 혐의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송환법 저지 시위를 벌

이자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로 홍콩 경무처장은 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했고, 32명의 시위 참여자를 체포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林鄭月娥) 행정장관마저 이를 "노골적으로 조직된 폭동의 선봉"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이러한 분노는 16일 주회 추산 2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표출됐다. /연합뉴스

인도 갠지스강 '탈출 마술' 실종 남성 시신 발견

인도 갠지스강에서 쇠사슬을 묶고 '탈출 마술'을 하다가 실종된 남성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PTI통신 등 인도 현지 매체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갠지스강 지류인 후갈리강에서 탈출 마술 공연을 하다가 전날 사고를 당한 마술사 찬탈 라히리의 시신을 발견했다.

라히리는 지난 16일 쇠사슬로 팔과 다리 등을 감고 자물쇠 6개를 채운 뒤 물속으로 들어갔으나 탈출 과정에서 실종

됐다.

이들은 애초 라히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마술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가 실종 시간이 길어져자 잠수부 등을 투입, 수색에 나섰다. 라히리의 시신은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됐다.

라히리는 21년 전인 1998년 갠지스강에서 비슷한 공연을 시도해 성공했다. 라히리는 이번 공연 전 인터뷰에서 "성공하면 마술이고, 실패하면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Xperon golf balls and X-Machine 24 vending machines. The ad features images of golf balls, a vending machine,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It highlights the 'Dual Balance Alignment Golf Ball' and the 'X-Machine 24' vending machine, along with a promotion for 1000 million won in prizes.